

인간과학의 통일성 구축을 위하여*

자크 르벨

제가 이번에 하게 될 강연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문제 하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에서 역사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학은 사회과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부분 인문과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초에 이미 역사학이 사회과학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프랑스의 사회과학을 구성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프랑스 역사학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우선 사회과학이 어떻게 프랑스 대학과 학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통일성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학제간 연구라고 말하는 학문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사회과학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19세기 말에 있었던 누벨 소르본느의 창립을

* 이 글은 자크 르벨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한 두번의 강연을 모은 글이다.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대학교육 조직을 뜻합니다. 19세기의 대학은 연구와는 상관이 없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일반 대중을 위한 강의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1860년대 이후부터 프랑스 대학에서는 독일의 모델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미나와 형식이라든지, 세미나에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19세기 말에는 이렇게 독일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프랑스적인 독창성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긴 제도 기관이 바로 고등 연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어떻게 독일식으로 연구하고 학문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 대한 패배는 아주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낭같은 작가는 만약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했다면 그것은 단지 군사적인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혹은 지적인 이유에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도덕적인 면에서의 재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대학 교육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과학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독일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학교육개혁의 빛나는 상징인 누벨 소르본느는 바로 이러한 도덕적 재무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5년부터 1차세계대전 즉, 1914년에 이르는 기간은 대학이 일대 성장을 이룬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수라든지 거기에 투입된 원조는 아주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대학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였습니다. 대학교육에 도입하려 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부 Belles Lettres'의 개념은 전문

적인 문학연구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학문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던 역사학은(왜냐하면 역사학은 국가에서 가장 큰 지원을 해주었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그 분야를 좀 더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19세기에 도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것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히 역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그 시기에 최대의 성장을 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875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그 기간에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다른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들이 역사학과 같은 리듬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까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그 시대에 새로 등장한 학문들이었습니다. 역사학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졌다면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19세기 말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학문들의 발전이 늦은 이유입니다. 이 학문들은 역사학처럼 대학이라는 제도적인 장치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리학의 경우입니다. 지리학은 프랑스에서 역사가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것은 16세기 중반부터 이미 고등학교에서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에서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리학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로 다른 하부분야로 분할되어 존재했습니다. 일단 박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역사지리학이 있었고 지도를 만드는 것에 관계된 수학적 지리학이 존재했으며 세계의 경제에 관심을 둔 묘사지리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리학의 세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가지 분야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하나의 지리학 분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학적인 중요성과 또 식민지에 대한 이해관계, 이러한 요소들이 대학에서 지리학이 자리를 잡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했습니다. 지리학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고 그 학문을 체계화했던 사람은 비다 드 라 블라슈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지리학 초창기 40년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리학의 모든 것을 재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의 교과과정 역시 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1차세계대전 직후에는 2개 대학을 제외하고 프랑스 전국 대학에 지리학이 교과과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경우로 사회학을 살펴봅시다. 사회학은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동시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 있어서 그 학문은 오랫동안 아마추어들이 하는 학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로써 위대한 사회학자인 오귀스트 콩트를 들 수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르 블레 같은 이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이 대학 내에서 학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에밀 뒤르켐의 등장에서부터입니다. 1900년도에 거의 40살이었던 에밀 뒤르켐은 우선 위대한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회학을 대학에서 인정받는 학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그가 힘을 기울였던 것은 연구를 같이할 협력자,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죠. 그의 주위에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고등사범 출신의 엘리트들만 그 그룹에 받아들였습니다. 뒤르켐 학파는 아주 강력한 동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898년에 창간된 『사회학 연감 *L'Annule Sociologique*』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아직도 읽는 이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른 사회과학에 사회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곧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뒤르켐 학파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모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차대전 직전에는 프랑스 전국에 걸쳐 두 개 대학에서만 사회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

회학은 지리학이 성공한 곳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회과학들이 동일한 지위를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경제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론 경제학은 18세기부터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은 1870년에 이르러서야 대학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게다가 경제학은 독자성을 갖고 강의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법과 대학 내에서 강의되었고, 1960년대 중반까지 법·경제학부라 불리어졌습니다. 아마 거기서 경제학의 지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은 신학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아주 오랜 전통을 지녀온 학문이고 경제학은 그 권위에 늘려있었습니다.

다른 예로는 심리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학문은 자체로는 통일성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심리학은 둘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의과대학의 심리학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 이론이 있었으며 이는 철학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언어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은 프랑스의 경우 아주 늦게, 즉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학에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언어학은 어학분야에 종속되어 있거나 문헌학의 일부, 혹은 개별 언어강의에 속해있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분야는 민속학입니다. 이것은 가장 불행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민속학은 단지 대학의 주변분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강의되지 않았고 박물관 내에서나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의 외곽에 존재하는 세미나를 통해서나 가끔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당시 사회과학의 위치나 그것이 행사했던 힘은 매우 다양하였었습니다. 역사학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대학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한 학문이었으며 사회적인 정통성 또한 누리고 있었

는데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좌파나 우파를 막론한 모든 정당에 있어서 국가주의의 시대였기에 이러한 역사상의 정통성은 보다 산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학은 좋은 경력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교수 임명은 '아그레가시옹 agrég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역사학은 제가 언급했던 사회과학 중에서 유일하게 아그레가시옹에 들어가 있는 과목입니다. 즉, 역사학만이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리학과 사회학은 역사학과 같은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즉, 모든 면에서 볼 때 학문 분야간에는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사회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제기된 문제가 인간과학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었고, 이 두 가지 모델은 서로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20세기 초에 나타난 것으로 20세기 내내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첫번째 모델은 통일성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아주 권위주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르켐과 뒤르켐학파에 의해 주장된 모델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입니다. 뒤르켐 학파가 구현한 것은 그 당시 대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뒤르켐과 그의 제자들이 제작한 것들은 그 당시 20년간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고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방법론의 핵심은 1895년에 발표된 『사회학 방법 규칙』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회학 연감』이라는 잡지도 매번 잡지가 나올 때마다 사회학 방법론을 새롭게 제기하고 강조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르켐의 방법론은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르켐은 사회학적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것

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에도 그 방법론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회학 연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러한 방법론을 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회학 연감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그 당시 출판된 저작들을 비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의 역사학자나 지리학자, 민속학자들의 업적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일련의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대부분 사회학과 여타 다른 사회과학 분야간의 대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의 대립이 가장 팽팽한 것이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었던 것은 뒤르켐 학파의 가장 뛰어난 사람 중의 하나였던 프랑소와 시미앙이었습니다. 1903년에는 비단 유럽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역사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이 과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때 프랑소와 시미앙이 개입했는데 그가 한 발표는 「역사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에 잡지에도 실리게 됩니다. 시미앙이 역사학자에게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학이 과학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쓰도록 하십시오. 특정 인물이라든지 사건과 같은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과학성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과학이 흥미를 가져야 될 것에 흥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역사를 통해서 자주 반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규칙성을 살펴보면 당신들은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이고 20세기 초, 특히 초창기의 『아날』지 같은 경우는 시미앙이 발표한 기사에 큰 도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의 1903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

니다. 이 당시에 시미앙은 스물 다섯살이었는데, 그는 어떤 저작도 없었지만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고 방법론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회학의 이름으로 했는데 당시 사회학 자체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프랑스 대학 내에서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모든 사회과학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볼셰비키의 혁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 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극소수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처럼. 물론 그것은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여전히 흥미로운 뒤르켐의 인식론적인 방법론과, 그 뒤에 있어서의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수단, 이 두 가지로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강연을 통해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학의 통합성을 위한 시도가 20세기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 다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경험적인 성격을 지닌 모델인데, 주로 역사학자에 의해 주도된 것입니다. 뒤르켐과 그의 학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동시에 좀 더 신중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1900년에 창간된 『역사종합잡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종합잡지』는 앙리 베르라는 사람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그는 뒤르켐과 같이 철학수업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 때까지 전혀 대학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르는 그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의 연구활동은 사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베르는 뒤르켐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부르조아에 속해 있었고 이들은 그 당시 사회과학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베르는 자신이 철학자이기는 했지만 이미 철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세기의 헤겔 같은 사람이 이루었던 인식의 백과사전적인 종합은 이미 지나간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을 종합할 수 있는

장소는 더이상 철학이 아니라 역사학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베르의 사고는 뒤르켐의 사고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는 당시에 진행중이었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개방된 장을 마련했고, 그것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간한 『역사종합잡지』에 연관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부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모든 학문분야들이 와서 토론할 수 있는 절충주의적인 학문의 장이었죠. 베르가 성공을 거두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던 이성의 위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성의 위기는 사회과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학문들이 기초하고 있는 인과관계라든지 결정론 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뒤르켐은 반대로 아주 오래된 결정론에 집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르는 그와는 반대로 새로운 과학성의 모델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을 새로운 사회과학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베르같은 사람을 통해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불확실성의 개념이 사회과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베르의 사업은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랑스의 경우, 약점을 안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베르의 사업은 사적인 작업에 국한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대학의 어떤 정통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델의 통합, 즉 뒤르켐의 모델과 베르의 모델의 통합은 한 세대 뒤에 『아날』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비단 잡지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지적인 움직임을 대표했던 『아날』지는 1929년에 스트라스부르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던 념 블록과 퀴시앵 페브르에 의해서 창간되었습니다. 이 『아날』지도 역시 어떻게 하면 사회학이 통일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하는 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아날』지는

뒤르켐과 베르가 실패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00년에 스무살에 불과했던 뉘블록와 뤼시앵 페브르는 뒤르켐 학파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일찌기, 베르를 중심으로 한 『역사종합』잡지 운동에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뒤르켐 학파에서 그 방법론을 도입했지만 그것의 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르로부터 절충주의와 종합적인 경향을 받아들였으나 그의 사적인 측면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날』지의 성공을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역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프랑스 대학에서 가장 커다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날』지는 학술지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18년 뒤에는 하나의 제도기관으로 성립되기까지 했습니다. 1947년에 페농 부르텔과 뤼시앵 페브르는 고등 연구원에 경제학과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제6부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연구원의 초기 30년간의 특징이라면 바로 역사학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과학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 강연에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이 학문간 상호 관련성이 수행되어 왔는지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소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늘 강연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강연에 연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죠. 지난 수요일 강연에서는 어떻게 여러 사회과학분과들이 어렵게 대학 정규과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그 분야들이 각각 어떻게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아카데미한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그때 사회과학의 통합성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 강연이 끝났습니다. 20세기 초의 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사회과학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문제였죠. 수요일에 이 강연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제가 소개했던 두 모델 간의 대립관계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 하나는 뒤르켐을 중심으로 한 아주 이론화된 모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훨씬 더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유연성을 갖고 있는, 역사가들이 주장했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모델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편리하게 뒤르켐 모델이라고 명명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뒤르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학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요즈음에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는 철학과 출신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사회과학에 자연과학의 엄밀함을 응용해보고자 하는 욕심을 냈고, 따라서 그의 사회학은 아주 이론화된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회학이 경험적인 연구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엄격한 과학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규범적인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르켐과 뒤르켐 학파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이 사회학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중심으로 사회학자들은 여러 사회과학자들과 논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뒤르켐은 1916년에 죽었고 그의 학파들은 대부분 1차 대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복수로서의 사회과학들이 아니라, 단수로서의 사회과학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뒤르켐에 따르면, 단지 하나의 사회과학이 존재할 뿐이며, 그것은 사회학이라 명명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대한 사회학이라는 제국 안에, 국제적인 하부 분야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부 분야들에 사회학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시미앙과의 논쟁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사학이 사회과학 안에 속하고 싶어한다면, 즉 사회학의 하부 학문이 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일단 사회학적인 역사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것은 권위적인 통일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

니다. 즉, 뒤르켐의 계획은 상호연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의 해체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각각의 분야들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존재해왔기 때문일 뿐이며, 그것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인식론에 바탕하여 우리는 그의 철학적인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뒤르켐의 야심은 결국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뒤르켐의 이론은 우선 기성의 다른 분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 당시 사회학은 정식으로 대학내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외부에 존재하는 순수 학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르켐 학파들이 세계 대전에서 대부분 전사해서 수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뒤르켐의 야심이 1차 대전 직후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프랑스 지식사에서 아주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프랑스의 지적인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조주의는 인류학과 언어학의 접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야콥슨의 음운론 체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레비 스트로스는 이러한 모델을 가족관계의 분석에 응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이후 거대한 패러다임이 되기 이전까지 상당히 기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자신의 분야에 응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그것이 중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요소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러한, 사고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뒤르켐과 구조주의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한 움직임입니다.

60년이란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방법은 모든 사회과

학에 한 가지 모델, 한 가지 방법을 제기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레비 스트로스가 제안한 구체적인 모델은 물론 언어학에도 나타나지만 또한 인류학, 심리학, 심지어는 문학사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모든 학문적 실천의 참조물이 된 방법론입니다. 이런 구조주의 운동에서도 언어학과 철학적인 수련을 거친 사람들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레비 스트로스의 경우도 그렇지만 구조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역시 철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뒤르켐과는 반대로 복수적인 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이 그 당시 구조주의를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회과학적인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학문실천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과학의 철학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과학자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예입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즉 그의 문화사회학은 아마도 이제까지의 어떤 경우보다도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경제학이나 인류학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잡지를 하나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 연구는 총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입니다. 이 잡지의 의미는 1세기전에 뒤르켐이 『사회학 연감』에 부여했던 역할과 흡사합니다. 저처럼 직업적으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어떻게 부르디외가 뒤르켐의 모델들을 재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디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경제학은 사회학이며 가장 훌륭한 역사학은 사회학적인 역사학입니다. 15년전 바로 자신의 이러한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 레비 스트로스와 논쟁을 벌이기도 한 부르디외는 가장 좋은 인류학은 사회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철학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사회과학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 지식사에는 아주 특징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철학적인 인식론이며 과학의 통일성은 방법의 통일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재등장하면서 분야간의 구획을 없애는 작업을 통해 학문상호관련성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역사학자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뒤르켐과 동시대인인 앙리 베르가 새로운 모델을 제기했었는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새로운 다른 양식은 경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결과의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기초에 이미 『역사종합잡지』가 잘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1929년에 페르낭 부르텔과 튀시앙 페브르가 『아날』지를 창간하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다른 학파들보다 더 훌륭한 저작을 생산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야심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델의 특수성이란 역사가 사회과학안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일인데 이러한 특수성은 강조할 만한 것입니다.

이 두 모델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단일한 방법론이 아니라 방법론들간의 교환입니다. 즉 이것은 학문 분야 간의 방법론들이 교환될 수 있는 자유교환시장의 성립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간의 방법론의 차용은 간혹 원시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 학문간의 상호연관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929부터 1950에 이르는 초기 『아날』지는 일종의 정보의 증권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뒤르켐처럼 그것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이런 경험적인 제안에서부터, 단일한 방법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는 오랫동안 사회과학이라는 이름보다 인간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과학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회 속의 인간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학문의 여러 분야들이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대상을 중심으로 합류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인식론적인 제안이지만 아주 커다란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움직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고 계시겠지만 가장 단순한 개념들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울한 확인이긴 하지만 대개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지성이라는 것을 들어봅시다. 지성사 연구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지성이라는 개념은 한번도 엄격한 개념화의 과정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와 심리학자와 인류학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이 대충 조합하여 만들어낸 이 개념이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낡은 개념이었지만, 일시적으로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학문간 상호연관성을 향한 역사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이 택한 길은 덜 야심적인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실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들간의 위계질서는 아주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뒤르켐이나 레비 스트로스가 참고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뒤르켐에게 있어서 모델이 된 학문은 사회학이었으며 레비스트로스에게는 인류학이 아니라 언어학이었습니다. 제가 묘사한 역사학의 경험적 모델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회과학간의 위계질서는 그들의 이해능력에 따라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는 1958년에 부르델에 의해 쓰여진 「장기지속」이라는 논문입니다. 부르델은 20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 중의 하나인데 초기 『아날』지를 계승하고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 학과를 형성하였습니다. 부르델은 25년동안 제도적으로나 지적으로 사회과학을 주도적으로 지배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지속」이라 명명된 그의 논문에서 그는 왜 역사학이 사회과학 간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야심이 큰 학문은 아니지만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덜 구조화된 학문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것이 사회과학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은 학제간 연구에서 일종의 교환을 허용하는 공용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1958년은 우연은 아니겠지만 구조주의가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어쩌면 부르델의 논문은 구조주의의 공격에 대해 평화를 제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구조주의는 어쩌면 두가지 모델들간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규범적인 모델과 경험적인 역사가들의 모델간의 대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갈수록 팽팽해 졌는데 그 이유는 구조주의가 근본적으로 반역사적이라는 주장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통시개념보다는 공시개념이 우선합니다. 이 논문이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러한 갈등의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1960년대를 지배했지만 1974-5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명이 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구조주의에 대응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주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안이, 역사에 등을 돌리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말부터 1970년까지 역사가들이 보여주는 반응 중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가들은 그들의 적인, 구조주의적 학문영역에 들어가

잠종교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역사 인류학이라는 것이 태어나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분야간의 전략으로 축소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인류학이라는 분야의 본래 의도는 적의 진지에 들어가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는 역사사회학이라는 것이 생겨나 사회학의 영역에서 역사가 갖는 위치를 확인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시금 이런 경험주의적인 사회과학간의 세력관계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보기에는 덜 매력적인데 그것은 구조주의에 비해 야심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구조주의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1960년대 말부터 역사가들의 영역과 연구대상이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엠마뉴엘 르 루와뒤레가 말하는 역사가들의 영역이 생겨난 것이 이 무렵입니다. 그의 저작의 제목이기도 한 『역사가들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의 제국주의에 반하는 역사학자들의 제국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의 제국주의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역사가들의 제국주의는 팽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수많은 제안과 그 영역의 확대로써 특징지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급성장이 그렇듯이 그것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에서도 그렇겠지만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급성장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첫번째 측면은 대상이 무한정 확장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으로 대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각 분야들의 업적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그 분야 안에 새로운 하분야들이 적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연구의 역동성과도 관련

이 있습니다. 한 제안이 제안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 그것은 하나의 기술로 변화하죠. 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구체화되어감에 따라 그것은 좀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제가 학생시절이었던 1920년도에 역사인구학이라는 한 분야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역사 인구학은 일반사회사의 한 분야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역사인구학은 모든 역사가들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오늘날 역사인구학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가 되었고 일반역사학자들에게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그 연구결과만을 볼 뿐이지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점점 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인구학과 같은 분야는 비단 역사학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의사소통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학문간 상호연관성의 문제는 이제부터는 학문간에서가 아니라 한 학문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두 가지 모델의 학문간 상호연관성은, 즉 단일성을 가진 모델과 경험적인 모델은 그 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동일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실들은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법론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상이라 하지만 모두 무엇인가 분리해 내야 할 의미를 포괄하는 건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 20년간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의 낙관주의의 잔재, 즉, 헤겔에서부터 쾰프, 그리고 맑스에 이르기까지의 19세기적 유산들은 오늘날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문간의 상호연관성 문제는 기존과는 아주 다른 용어로 제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회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단일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능주의 무대, 즉, 구조주의라든지 맑시즘의 문제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할 문제는, 20세기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문분야간의 융합의 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의 경우에는, 역사인류학자의 방법론이 활용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의 영역으로 와서 그들의 영역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또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의 학문을 지나치게 접목시켰을 때 우리는 개별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망각하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극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잠재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분야들이 같이 작업하는 것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교환할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유성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혹은 15년간의 경우를 보면 학문분야간의 정체성이 서서히 다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간의 교환을 자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반대로 바로 그 학문간의 교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해 줄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역사학자들이 경제학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 경제학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다른 분야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학문의 방법론을 원용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과거보다는 덜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론을 원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히 역사를 소개했지만, 학문간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획이며 모험입니다. 학문간 상호연관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들 있지만 사실 그 말만큼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문분야

간에 어떤 안정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들간에 체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체제는 각 분야의 역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 수 있고, 각 분야들이 갖고 있는 세력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것이 참조하는 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론들은 모두 변화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학문간 상호 연관성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